



임성재가 20일(한국시간) PGA 웹닷컴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원코 푸드 포틀랜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왕 등극과 함께 PGA 투어 입성을 확정했다. 사진제공 | PGA·게티이미지

### ‘웹닷컴 상금왕’ 임성재 PGA 투어 출전권 획득 시즌 내내 상금 1위 “PGA 우승 꿈”

미국프로골프(PGA) 2부 웹닷컴 투어에서 활약 중인 임성재(20·CJ대한통운)가 상금 랭킹 1위로 PGA 투어 2018~2019 시즌 출전권을 획득했다.

임성재는 20일(한국시간) 끝난 웹닷컴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원코 푸드 포틀랜드 오픈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2승을 달성한 임성재는 아시아선수로는 최초로 웹닷컴 투어 정규 시즌 상금왕에 올랐다. 그는 상금 순위 상위 25명에게 주어지는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이번 시즌 웹닷컴 투어 시즌 개막전인 ‘바하마 그레이트 엑스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16번째로 데뷔전에서 우승한 임성재는 시즌을 마칠 때까지 상금 랭킹 1위를 고수했다. 이는 웹닷컴 투어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임성재는 “너무 기분 좋다. 경기 직후 PGA 출전권을 바로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주어질지 몰랐다”라고 놀라워하며 “내일은 쉬면서 가족들이랑 축하파티 할 생각이 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대회에서 우승할 때에 코스나 나랑 잘 맞는 편이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코스도 나랑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린도 딱딱하고 빠른 걸 좋아하는데 코스컨디션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PGA 투어 첫 시즌은 125위 안에 드는 것을 첫 목표로 하려 한다. 우승 기회가 온다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한편, 임성재와 함께 웹닷컴 투어에서 뛰던 이경훈(27·CJ대한통운)도 상금 랭킹 5위로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벤투 사단’ 입국 “내년 1월 UAE 아시안컵부터 우승하겠다”



2022카타르월드컵을 책임질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신임 감독(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코치 4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은 벤투 감독은 “한국대표팀을 이끌게 돼 영광스럽다. 한국축구의 선수들에 맞는 뚜렷한 컬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대한축구협회와 4년 계약을 맺은 벤투 감독은 “최근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에서도 다시 결승에 올라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덧붙였다. 벤투 감독은 22일 집무실이 마련될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를 방문한 뒤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23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27일 코스타리카~칠레로 이어질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태극전사 23명을 공개한다. 인천국제공항 | 뉴스스

### 이재성,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이강인은 개막전 엔트리 제외

이재성, 컵 대회 풀타임 1도움 활약  
이강인, 1군 데뷔전은 ‘다음 기회에’

독일 분데스리가2(2부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는 이재성(26·홀슈타인 킬)이 컵 대회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홀슈타인 킬은 2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그뤼발데어 슈타디온에서 열린 1860 뮌헨과의 2018~2019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서 3-1로 승리를 거뒀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팀



이재성

이 2-1로 앞선 후반 42분 김슬리 선들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전반전 킥오프 7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리드를 뺏긴 홀슈타인 킬은 후반 20분 아론 세이델의 크로스를 알렉산데르 볼링이 골로 만들어내면서 균형을 맞췄다. 이어 후반 38분 볼링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좋은 흐름을 탄 홀슈타인 킬은 후반 43분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선들이 추가골로 연결해 승기를 굳혔다.

앞서 분데스리가2 정규리그 1~2라운드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재성은 이날도 도움 1개를 추가하면서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홀슈타인 킬은 26일 레겐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2 정규리그 3라운드 원정에 나선다.

한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는 21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018~2019 1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18명의 엔트리

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발렌시아 유망주 이강인(17)은 개막전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강인은 1군 훈련에 합류해 프리 시즌 친선경기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다. 12일 레버쿠젠(독일)과 친선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이 1군 데뷔전을 언제 치를지 알 수 없으나 프리시즌 내내 가르시아 토랄 마르셀리노 감독이 신뢰를 보낸 만큼 조만간 호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이대는 “최고구속 151km”...입맛만 다신 스카우트들

#### KBO 해외파 트라이아웃 현장 리포트

“뽀아주는 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2019 KBO 해외파 트라이아웃이 20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는 해외리그를 거친 10명이 참가신청서를 냈다. 이날 트라이아웃에는 여객 통증을 호소한 허민 전 고양 원더스 구단주를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10개 구단 스카우트는 물론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까지 자리를 찾았다.

‘빅3’는 투수 이대은(29·경찰 야구단)과 내야수 이학주(전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하재훈(전 아쿠르트)이었다. 경찰 신인인 이대은은 외출 허락을 받아 참가했다.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최고구속은 120km대 안팎. 이튿날인 21일 문경 상무전에 선발 등판하기 때문이다. 이대은은 “트라이아웃으로 경찰 야구단에 지장을 주고 싶지



2019 KBO 해외파 트라이아웃이 20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진행됐다. 프로팀 유니폼을 꿈꾸는 하재훈과 이학주, 김성민, 이대은, 윤정현(왼쪽부터)이 트라이아웃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수원 |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않았다”며 “올해 초 오른쪽 뒤꿈치를 다쳐 주춤했지만 지금은 괜찮다. 최고구속은 151km 정도”라고 밝혔다.

KT 위즈를 제외한 팀 스카우트들은 “우

리는 이대은을 볼 필요가 없다”는 농담으로 그의 행선지를 암시했다. 이대은은 “KT위즈파크 마운드에 선 것은 처음인데 외야가 가깝다. 하지만 벽체야구장보다는 훨씬

KT 의식? “볼 필요 없다” 농담 이학주·하재훈 등 뜨거운 관심

씬 낫다”며 “뽀아주는 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주에게도 스카우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A팀 스카우트 팀장은 “타격과 수비 모두 굵이 달랐다. 연결동작이 모두 매끄러웠다”고 칭찬했다.

이학주는 3루와 유격수 위치에서 평고를 받으며 멀티 능력도 과시했다. 그는 “좋게 봐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무릎 통증을 없다. 이제 경기 감각만 끌어올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재훈은 타격과 송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다”며 “야구는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포츠다. 내년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들이 참가하는 KBO 2차 신인드래프트는 9월 10일 열린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KBO 외부 감사 결과 발표 “조직 개편 단행할 것”

조직 유연성 강화...직무 순환 필요 중계권 계약 등 경쟁입찰 원칙으로

KBO가 지난 4월 23일 외부 감사 실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후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KBO는 인력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KBO 업무 전반

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운찬 총재에게 보고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009년 이후 9년 만에 실시한 외부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KBO에 따르면, 주요 계정과 회계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KBO 재정 운용과 관련해 조직의 재무 상태 및 운영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회

계가 포함된 총괄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BO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곧바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구매 계약 자금 운영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직무 순환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따라 KBO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TV, 뉴미디어, IPTV 등과의 중계권 계약 전체와 KBO 리그 공식 기록 데이터 관련 사업 관리 금액의 산출 근거, 계약의 적

정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라이선싱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업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입찰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정했다.

주최단체지원금 등 일체의 보조금과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현행 평가 지표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보고서와 결과에 대해 중점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